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26호 2013년 2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 snuaausa@yahoo.com



미주 동창회 차장기(제13대) 회장

손재옥·윤상래 동문 두 후보 추천

두가지 중점사업으로 신바람 동문회 만들 타...손
'은고이지신' 뜻 새기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윤

지난 1월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주 동창회 차장기(제13대) 회장 후보로 필라델피아 동창회 손재옥(생할과대 77·사진 왼쪽) 전 회장과 뉴잉글랜드 동창회 윤상래(수의대 62·사진 오른쪽) 전 회장 두 분이 추천됐다(이들 등 게재 순서는 가나다 순).

따라서 미주 동창회는 오는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릴 제22차 미

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이 두 후보 외에 Floor Nomination을 통해 다른 후보가 추천될 경우 이분들 중 한 분이 제13대 미주 동창회장으로 선출된다. 제22차 평의원 회의는 6월 21일(금) 제22차 Westin Tysons Corner(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에서 개최한다.

다음은 두 동문의 차장기 미주 동창회장으로 출마한 소견을 요약한 것이다. <전문 6·7면 참조>
▶윤상래(수의대 62) 동문= 제13대 집행부 소임을 저의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라는 간곡한 선�후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한 분은 본 모두가 자랑스럽고 훌륭한 우리 동문님들의 뜻과 성심을 모아 미주 동창회 발전에 '은고이지



신(源放而知新)'의 뜻을 새기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정 확보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동창회보 편입 원칙이 확립을 위해 미주 전 동문들의 성심과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모교와 미주 각 지역의 동창회에 특화된 제도를 마련해 소식이나 좋은 글들을 때때로 게재함으로써 더 탄탄하고 사랑받는 동창회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Brain Network Workshop'을 열 것·경제는 물론 IT·공학·의학 등...의뢰 위원회' 신설로 미등동학회의 발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로 동문들의 전문 지식과 선의가 동창회에 선용되고 모교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손재옥(생할과대 77) 동문=선배 회장님들이 훌륭한 초석을 놓아 주셨으니 그 위에 좀 더 확대 내지는 강화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첫째는 모교와 관계 강화로 의사 소통 통로를 넓히는 것이고, 둘째는 미등동 동문들을 찾아내 수석 중가를 펴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가치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모교와 관계강화에 있어서는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함께 점검하고 미주 동창회의 실질적 역할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대내외 사임으로는 지역 동창회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같은 사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Brain Network Workshop은 전국 각지 동문 석학들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아인만큼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로 확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미주 동창회보가 매월 6·7권부가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동문들이 많아 이들을 발굴하고 보다 더 나가자는 동창회보를 만들것입니다.***

이달의 초대석
김영원 참~14면

이달의 초대석
김경석 박사~15면

언역학의 대가 정재웅 박사

USC의과대 '최고 교수'에 올라



USC 의대 정재웅(53, 사진) 교수가 이 대학 한국인 최초로 '최고 교수'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로 임명되는 영예를 안았다. USC 측은 지난 1월 16일 맥 의대 (Keeck School of Medicine) 정재웅 박사명칭을 및 언어학과 학과장 겸 교수로 '최고 교수'로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USC에서 '최고 교수'는 이 대학 역사상

총 28명만이 임명됐을만큼 영광스러운 자리로 석좌교수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재웅 교수에겐 또 하나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정재웅 교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발병 전에 생겨 악성 종양인 카포시 육종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처음 밝혀냈고 바이러스가 인체 면역 체계로부터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을 역시 최초로 발견한 바 있다.

정재웅 교수는 지난 2004년 '한인 최초의 하버드대 종신교수'에 임명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 연구를 중심으로 카포시 육종 관련 헤르페스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혈액 관련 연구에 몰두하

고 있다. 정 교수는 "USC에 온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에 몰두해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웅 교수는 모교에서 농대를 졸업하고 UC 데이비스에서 미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연구원 및 교수를 거쳐 지난 2004년, 한인 최초로 하버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USC에 의해 분자미생물학 및 면역학과 학과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해에는 기초와 임상, 약학을 포함한 의, 약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수여되는 호암의학상을 수상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한국인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 합동회 동문

3월부터 모교 공대에서 강의 예정

지난 2002년 28세로 하버드대 교수로 임명... 2009년 MIT의 'Technology Review'지 선정 '올해의 젊은 과학자' 35인 '에도 물라'

한국인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로 과학계를 모았던 함돈희(39세) 하버드대 생물물리학과 교수가 모교 서울대 공대에 임용될 전망이다.

모교 공대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하버드대 함돈희 교수를 전기전자공학부, 전기 공과대학 교수로 임용하기로 하고 이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난 1월 10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모교 대학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함돈희 교수는 3월부터 모교의 공대에 서게 된다.

함돈희 교수는 지난 2002년 28세의 나이로 하버드대 교수에 임용돼 한국인 최연소 하버드

대 교수 임용 기록을 세운 과학자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에는 미 과학추진국 공대(MIT)가 발간하는 기술잡지 '테크놀로지 리뷰(Technology Review)'가 선정한 '올해의 젊은 과학자' 35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부산 출신인 함돈희 교수는 모교 자연과학대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보통 연구자'로, 미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전공을 전자공학으로 바꿔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함 교수는 그동안 휴대전화,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등에 쓰이는 초소형 회로들의 전자공학 및 생명공학을 접목하고 집적회로를 통해 세포를 조절하는 연구 등의 분야에 힘을 쏟아왔다.

모교 서울대는 '글로벌 선도연구자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인 '글로벌 차세대 신진교수 초빙'의 일환으로 함 교수 임용을 추진했다.***

한인동포 자넷 한

모교 수의과대 첫 말 전문의 교수임용

코넬·버지니아텍에서 공부...

학제 첫 교수 임용에 주축

모교 수의과대에 미국에서 말(馬) 내과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한자계 미국인 자넷 한(32세) 교수를 미국인 교수로 처음 초빙해 임용했다고 지난 1월 8일 밝혔다.

자넷 한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지난 2004년 코넬대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지난 2008년 버지니아텍 수의과 대학에서 말 내과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그는 이미 지난 해 9월부터 서울대 수의대 본과 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馬學)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교 출판부 수의대 학장은 "국내 수의학계에는 아직 동물 분별별 전문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자넷 한 교수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의 채용을 통해 동물 분별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넷 한 교수는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말이 훨씬 많고 관련 산업이 상당히 높고 있어 전문의로서 막대한 수요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자넷 한 교수는 한국 마사지와 함께 매우 한 자제의 말을 정기 진료할 계획이다.



자넷 한 교수는 "한국에서 말을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의의 뿐 아니라 상담과 관련된 동물 행동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넷 한 교수는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말이 훨씬 많고 관련 산업이 상당히 높고 있어 전문의로서 막대한 수요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모교 '오바마 프로젝트' 가동

특별하지만 의견달라진 듯... 3월부터 기숙사에서 '아크로폴리스 프로젝트' 가동

'실득'과 토론의 달인' 플린턴

'오바마와 같은 인종'이 서울대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모교가 "특별하지만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해 답답하다"

는 모교생에 대한 인식을 뿌리 뽑을 강도 높은 토론 프로그램을 3월부터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일명 '아

크로폴리스 프로젝트'다.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학자-정치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던 연회로, '토론의 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크로폴리스 프로젝트는 ▶ 고전 강독 ▶ 독서 토론 ▶ 장문 토론 교정 ▶ 모교내외 출신의 4인조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학학·자연과학·수학·언어학 등 각종 분야의 고전

을 2주에 1권씩, 1년에 모두 25권을 강도 높은 토론 프로그램

을 3월부터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일명 '아

크로폴리스 프로젝트'다.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고전 강독과 독서 토론을 거쳐 '기초 선택'을 기본 학생들은 집중 토론 과정을 통해 토론 기술을 익히게 된다.

토론 전문가를 초빙해 '논리 구성법' 기법, '논쟁하는 글 쓰는 법', '토론 스킬' 형식 연습

을 비롯해 '일 스킬' 등 토론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모교의 이런 '오바마 프

젝트'는 미국의 사립대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의 커리큘럼과

유사하다.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은 강의 수업이 아닌, 학생과 교수가 질문을 주고 받으며 토론하

는 소규모 소크라테스식 문답

법 수업을 고집하고 있다.***

원로배우 신영균 동문

모교에 100억대 땅 도네이션



'신영균·서울대 발전기금' 설립, 3년 내 500억 원 사회 환원

지난 2010년 사재(私財)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바 있는 동문 원로배우 신영균(85·사망)

한국 영화계 총연장명예회장이자 이번에는 최근 모교 서울대

에 100억원 상당의 제주도 토지

를 기부하고, '신영균·서울대 발전기금'을 설립했다.

신영균 명예회장은 "영화학

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연 기했고, 희로인·경제인·경지인

의 인생을 '연기'가 아닌 '실

제'로 살아간 사람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명예회장은 "영

화보다 더 열화 같았던 나의 삶

에 국민 여러분이 들뜬 마음으로 주신 사랑을 모두 돌려 드리고

다"고 밝혔다.

그가 기부한 토지는 제주도 중

문지방 일대의 땅 6만6000㎡

(약 2만평)이다.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관계자

"토지의 정확한 가치는 현재의 이용 가치 등을 토대로 한 시세

보다도 훨씬더 많은 부가가치가

가들이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곳은 지

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도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세

가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잘 알려져 있

는 바와 같이 모교 치의학과 48학

번이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해인 2012

년 영화계 최초로 '제22회 지

상'을 서울대인' 중 한 명예

에 선정됐다.

그는 1994년 영화계에 데뷔해

그동안 300편에 이르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어왔다.

지난 1979년 한국 영화인협회

이사장,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후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도積極 활발히 벌이

고 있다.

최근 모교 서울대에서 열린 협

약식에는 오연현 총장, 신영식

한수 총장, 최영호 서울대 이사

장 등이 참석했다.

모교 오연현 총장은 "서울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

도록 도와주신 신 명예회장의

뜻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았

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법인과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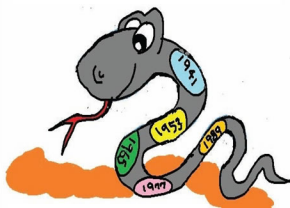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모교

에 대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

다"고 화답했다.***

시사만평 박준창(인문대 79·번호사)

"계사원은 흙뿔의 해파리다"



해당 동문들 다 번성하시길!!

차 례	8-11. 미주 동문동향	대 기고교	22. 영국 여행가 가족과 여류들 만끽한 여
3. <고국 찾길 캄보디아에 대통령과 위원장 김정은> 설의 여인	12. 리오의 의사와의 000/000의 취직기	16-18. 미주지역 동향회 소식	23. <이민> 여행가 가족과 여류들 만끽한 여
4.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와 일하기	19.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24. 고국 동문동향
5.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13. <레몬의 인물> 지구촌 한민 저자 김경순	다에> 일하는 노년기 이문남	25.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6.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행정대학원 6년 1월) 동문	20.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26.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7.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14. <레몬의 인물> 지구촌 한민 저자 김경순	21.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27.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8.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15. <레몬의 인물> 지구촌 한민 저자 김경순	22.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28.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9.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29.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10.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30. <레몬과 레몬> 설의 여인

경제학 칼럼

마태효과(Mathew Effect)

이명성(상대 58)
주부 텍사스 통화의 전향자

란 '누적효과(Accumulated Advantage)' 이라고도 하는데, '유익이 빈익' 현상 즉 '유익이 더 많은 유익을, 불리한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 **콜라의 시작** 1968년 사회학자 Robert K. Merton이 처음 사용한 단어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12 및 25:29에 기록된 "부름 있는 자는 받아 더하니라 부름 없는 자는 받는 것이 더하여질리라"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마태효과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단어는 자연과학·사회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경제분야에서 처음 개용한 소극 불균형을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소득 불균형을 사회적 행복지수를 저하시킨다고 국민적 응징권을 약화시킨다. 미국에 다가오고 있는 재정적벽(Fiscal Cliff)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해마다 재정적벽에 대한 정치적 해결 논의의 결여가 한 원인으로 추려지고 생각된다.

비교적 성숙한 이 마태효과와 역사적 및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무척 거대하며 할 말만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이론, 정당, 정치인 모두 공교롭게 대한 비평이 아니고는 정치 진전에 대한 고찰이 아닌 마태효과와 소득 불균형의 문제에 국한하고 있다.

▶ **마태효과와 생애** 마태효과는 자유방위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다.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기업이나 자본으로 시작하는 기업보다 더 큰 돈을 벌며 많은 이익을 시작하는 기업보다 소자본의 기업이 비교적 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본가들의 소득이 근로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자와 자식은 누적효과와 복리의 혜택이 커져서 자손이 벌어들인 소득은 부모의 소득에 비해 몇 배는 많은 근로자들의 소득은 별로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격차가 어느 한계를 넘으면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자본주의는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20세기 초만 위대한 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1883-1950)

는 '자본주의는 봉건사회와 사회주의로 대체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상당한 의의를 부여했지만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도 진화한다고 보았으며 그는 자본주의의 소위 '창조적 파괴'라고 표현되는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과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는 사회적 진보창상의 영향을 받아 수평적 개인과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로 통하여 점차적으로 일아날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자유자본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믿었다. 장차 유망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원본을 보면서 소비주의의 선진적 형태와 해안에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 **전후 30년간의 자본주의와 마태효과** 2차 세계대전 이후와 30년간 동안 서구와 미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의 발달을 잠시 살펴보자.

전후 세계와 미국은 케인주의 이론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실행으로 자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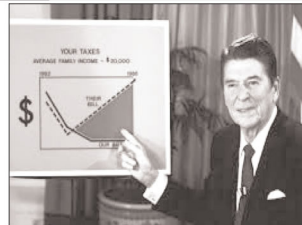
의론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보복하고로 서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여러 중동 산유국들이 매년 이상 서유수출공급을 중단하며 서유수출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 바람에 세계, 특히 미국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국민들은 전후부흥한 고동과 불안을 겪었다. 1974년 4월 벨라루스는 폭염이지만 4개월 간 고유가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장기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현상이었다.

만일 통화위기와 이었던 케인 이론이 어떤런 잘 듣지 않았다. 따라서 Milton Friedman(1912-2006)교수의 작은 정부와 통화주의 경제학이 위험을 완화하게 되며 이어 1980년대 에 대대적인 정부의 '공공주의' 경제이론(Supply-side Economics) 즉 '레이거노믹스'가 나오게 된다.

이같은 공급주의 정책은 부자를 위한 기득권 세습 인화와 규제 철폐로 자유 자본주의에서 정치는 자연 마태효과와 비교된다. 이는 의도적이며 기형적인 인 마태효과를 가져왔다.

제2차 대전 후 30년간 나타난 상대적 마태효과는 부자의 소득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중산



1980년대 미 레이건 정부의 공급주의 경제이론(Supply-side Economics) 즉 레이거노믹스가 내오 케인즈 경제 이론을 완전히 대체하고 미국 경제를 주도했다.

부계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경제 관습의 위기를 강요한 것은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가계 중산상이라고 불리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공급주의 정책은 부자를 위한 기득권 세습 인화와 규제 철폐로 자유 자본주의에서 정치는 자연 마태효과와 비교된다. 이는 의도적이며 기형적인 인 마태효과를 가져왔다.

제2차 대전 후 30년간 나타난 상대적 마태효과는 부자의 소득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중산

고 있다.

스태플 23, 덴마크 24, 독일 27, 그리 30, 호주 30, 한국 31, 이스라엘 32, 영국 34, 일본 37, 이스라엘 39, 러시아 42와 대조된다. 미국은 이 시기 세계의 모범적 자본주의 사회로서의 자리를 내놓고 소외됐다.

▶ **선진적 마태효과와 불평등** 전후-앞에서 인용했던 마태복음의 성경은 여자가 신자들의 믿음과 사명에 대하여 알기 쉬운 물질적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믿음이 좋으면 큰 열매를 맺고 좋은 농작물을 많이 심을수록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현실적인 자본주의와 농작물의 (meritocracy)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마태복음 25:14-30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계속하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수하들에게 자기의 돈을 따라 따라 간액의 자금을 위탁하였다.

여행에서 돌아오니 농작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많은 것을 벌어들여 바치는데 농작이 없는 자는 본전을 잃을까봐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잊어버렸다. 주인은 농작이 있는 자와 충직한 자는 크게 치하하고 잔액을 돌려주며 계속 늘리고고 부탁한 자는 농작이 있는 자의 본전을 배가 능력이 충직한 자에게 주었다.

▶ **그런 하나님** 농작주의자 (meritocrat) 이시고 자본주의의 자이신가?

마태복음 25:35-41에 관하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아를 잃고 자아를 잃고자 하는 자는 본전을 잃을까봐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잊어버렸다. 주인은 농작이 있는 자와 충직한 자는 크게 치하하고 잔액을 돌려주며 계속 늘리고고 부탁한 자는 농작이 있는 자의 본전을 배가 능력이 충직한 자에게 주었다.

▶ **그런 하나님** 농작주의자 (meritocrat) 이시고 자본주의의 자이신가?

마태복음 25:35-41에 관하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아를 잃고 자아를 잃고자 하는 자는 본전을 잃을까봐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잊어버렸다. 주인은 농작이 있는 자와 충직한 자는 크게 치하하고 잔액을 돌려주며 계속 늘리고고 부탁한 자는 농작이 있는 자의 본전을 배가 능력이 충직한 자에게 주었다.

▶ **그런 하나님** 농작주의자 (meritocrat) 이시고 자본주의의 자이신가?

< 7면에 계속 >

1980년대 이후 절대적 마태효과, 즉 극단의 부익부영 증산증과 빈곤층의 절대적 소득감소로 나타나 이 현상이 계속되면 국민적 유대감과 행복지수는 급감한다

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개발주의적 정부의 국가가 가비된 수정 자유주의의 새로운 사회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선진 자본주의의 국가들은 저실업률과 온건한 물가 상승을 줄 수 있다.

▶ **신상적 마태효과와 절대적 마태효과** 레이거노믹스의 특징은 가격적 강제와 규제의 완화 및 철폐였다. 작은 정부를 시도하였으나 국방비의 급증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최고율은 70%에서 50%, 38.5%, 28%로 계속 인하하고 자본 이득세(배당, 주식매매 이익 등)는 70년대 36-28%에서 20%로 인하하였다. 모든 분야의 국가 규정이 철폐되면서 완화됐다.

1990년대의 클린턴 정부는는 개인소득 최고율을 39.6%에서 인하시켰다. 2000년대 부시 대통령은 2001년 35%에서 28%로 인하하였다. 2003년 28%에서 25%로 인하하였다. 2008년 25%에서 21%로 인하하였다. 2012년 21%로 인하하였다. 2013년 1월 부시 부시 간섭법은 만기가 되어 원래대로 100만 달러가 되며, 그 초과액에 대한 최고 세율은 55%로 돌아간다.

부시 정부의 신보수주의(Moon Con.)는 레이거노믹스의 연장 선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73년 1974년 10월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석유대란(Oil Crisis)이 오면서 경제는 급락했다.

1973년 1974년 10월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석유대란(Oil Crisis)이 오면서 경제는 급락했다.

그러나, 개발주의적 정부의 국가가 가비된 수정 자유주의의 새로운 사회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선진 자본주의의 국가들은 저실업률과 온건한 물가 상승을 줄 수 있다.

▶ **신상적 마태효과와 절대적 마태효과** 레이거노믹스의 특징은 가격적 강제와 규제의 완화 및 철폐였다. 작은 정부를 시도하였으나 국방비의 급증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최고율은 70%에서 50%, 38.5%, 28%로 계속 인하하고 자본 이득세(배당, 주식매매 이익 등)는 70년대 36-28%에서 20%로 인하하였다. 모든 분야의 국가 규정이 철폐되면서 완화됐다.

1990년대의 클린턴 정부는는 개인소득 최고율을 39.6%에서 인하시켰다. 2000년대 부시 대통령은 2001년 35%에서 28%로 인하하였다. 2003년 28%에서 25%로 인하하였다. 2008년 25%에서 21%로 인하하였다. 2012년 21%로 인하하였다. 2013년 1월 부시 부시 간섭법은 만기가 되어 원래대로 100만 달러가 되며, 그 초과액에 대한 최고 세율은 55%로 돌아간다.

부시 정부의 신보수주의(Moon Con.)는 레이거노믹스의 연장 선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73년 1974년 10월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석유대란(Oil Crisis)이 오면서 경제는 급락했다.

1973년 1974년 10월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석유대란(Oil Crisis)이 오면서 경제는 급락했다.

1973년 1974년 10월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석유대란(Oil Crisis)이 오면서 경제는 급락했다.

등문 동진 (일부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김의신 박사 남가주에서 건강 강좌

“양 예방하려면 동물성 기름 피하고 유제품... 기름 줄이면 있으면 정기검진 하며 더 조심하고 40대 이후에는 소식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 권 권위 건강 강좌 앞서 언론인 인터뷰

세계적인 안 권위 자 김의신(70)

장진영 박사 단분자 분광기술 특허 출원

“단분자 활성 물질 조기 발견을 치료 위해 노력...” “치매 등 노인 질환 타겟” “미국 관련회사도 큰 관심” 미국

여성 화학자 장진영 박사(사진)가 질병의 원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남가주에서 신청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장진영 박사는 모교 차인화대학교 화학부에서 지난 2009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진영 박사는 인체 내 대분자의 결정들이 언제 세포 내 단백질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해 레이저 광학 기술인 ‘단분자 분광학(Single Molecular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질병 조기 발견에 적용했다.

장 박사는 “분자 수준에서 각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에 대한 개념이 알려진 것은 오래 됐지만 인 비트로 같은 실험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술을 의료계에서 활용하면 사람의 의 치료용 또는 세포의 작은 조직이나 세포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박사에 따르면 현재 의학과 생물학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포 또는 조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해 왔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분자 분광학 기술이 실제 질병의 연구 및 예방과 관련 있는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을 확립하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장 박사의 설명이다.

특히 장 박사는 “중독과 알츠

하이머 등의 노인성 질환의 발생과정을 단분자 분광학에 의해 실시간으로 살펴본 연구 결과를 장진영 박사 출판한 것을 준비 중으로 이들 질병을 연구하는 관련 학계의 관심도 크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현재 미국내에서도 몇몇 회사가 이 기술을 연구하거나 계약상으로 관심을 보이고 연락을 해오는 곳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특히가 출판되고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돼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강조했다.

장진영 박사는 의사 집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장 박사 부친 장진영 박사는 역시 유전학 분야의 의사다. 장진영 박사는 한국에서 의로봉사를 활발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존상’ 및 ‘서울 시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진영 박사는 “단분자 분광학 기술을 기본으로 앞으로 좀 더 안정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의로계가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뉴욕에서.

▶유세인(공대 59) = 지난 2월 16일 휴스턴에서.

▶홍승호(공대 60) = 지난 1월 13일 시카고에서.

▶정영환(사대 62) = 지난 해 11월 9일 뉴욕에서.

“김의신 박사가 지난 1월 26일 남가주 가든 글로브 한인타운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 박사는 “특히 앞의 발발 요인 중 담배보다 해로운 것이 동물성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6일 남가주의 한미 가정상담소(이사장 수장 최)에서 마련한 전문가 초청 건강강좌에서 첫 강사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이 강연에 앞선 1월 24 일 가든글로브 한인타운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담배보다 과일 등에 나쁜 것이 동물성 지방입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대부분 맛이 있지만 기름 적지만 삼겹살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D 센터인 암 센터에서 30여년 동안 수감된 안 권위자 장진영 박사는 김의신 박사는 암이 발생하면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하는 김 박사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현대 의학이 예전만 비해서 크게 발전하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제대로 못 고치고 있

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한인들에게 전하는 암 예방법으로 ▶암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에 많이 있는 사람은 이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피하라 ▶40대까지 지나면 예방은 본래 복해가 적게 있기 때문에 소식하고 ▶적당량 운동과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 등을 꼽았다.

김 박사는 “질병이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상호 작용이 되지 않아 생긴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특정 물질이 많아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현재 과학적으로 합당하다고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은 ‘기타’에 포함하고 있는 ‘카페인’과 전통적인 아시아에 포함하고 있는 ‘세리 펠릭스’ 등 2가지다.

암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김 박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그동안 보온수술은 암환자들 중에서 ‘기적

적”으로 생환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포기하고 편안하게 생활한 환자들이다.

김 박사는 “암이 발생하면 생환할 줄 아는 과학적으로도 지지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한국 암 환자들 중에서는 의사들이 너무 많은 탓에 때때로 신뢰와 믿음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도 의료 시스템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하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한국의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김 박사는 “가든글로브 한인타운에서 해당 부당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호씨의 부인 김옥자씨도 있다.”

오렌저카운티 한인 동문 사에서는 처음으로 공개 강의를 가진 김 박사는 한미 상담소에서 강사로 초청돼 암과 건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이 대상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과 상담을 받는다.***



윤동준 동문 디스크 치유 7년간 700명

20년 이상 경력의 척추 전문의로 높은 환자율과 고품질을 지킴

남가주 가든 글로브에서 20년 넘게 척추 디스크 및 파골 신경 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윤동준 척추신경병원(원장 윤동준)’에서는 지난 900여 명에 달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을 시켰다.

윤동준 척추신경병원의 디스크 감압시스템 치료기 DRX 9000은 무통맥 상태에서 활동하고 돌아오는 NMDA 주주인물인 척추디스크 간격을 넓혀주고 오목 및 신경통이 없어지는 수술에 착안한 과학 기술을 연구 개발한 최첨단 의 료기다.

로고 의학과 DCA, LCA를

가치 7주 척추진료 보드 진료의 및 척추신경병원의 정형외과로 활동하고 있는 윤동준 원장은 척추마비 때부터이다.

윤동준 척추신경병원의 디스크 감압시스템 치료기 DRX 9000은 무통맥 상태에서 활동하고 돌아오는 NMDA 주주인물인 척추디스크 간격을 넓혀주고 오목 및 신경통이 없어지는 수술에 착안한 과학 기술을 연구 개발한 최첨단 의 료기다.

현해명 동문 남가주에서 개인진

‘자녀 친미’ ‘술’을 주제로 신비·미·기이감을 확확히 담다



최근 현해명 동문이 남가주 토론토 홀 파인어빌 갤러리에서 오는 지난 1월 26일부터 한 달간 개인진을 가졌다.

조용하고 섬세하게, 끊임없이 조용하는 작업을 선보이는 현 해명 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숲(Forests)’이란 제목으로 지난 자연을 참미했다.

새롭게 찾아오는 계절, 새봄 개 꽃 피우고 꽃 피우는 나무, 새봄 개 꽃 피우는 해마 달, 새봄 개 꽃 피우는 바람은 새봄 개 꽃 피우는 경이들을 선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대로 화에 투영했다는 말이다.

일상의 영감은 창조주에 대한 신앙과도 맥이요, 그것은 또 그를 둘러싼 자연과 일상에 흡수된 다. 늘 자연을 모티브로 작업

이 최첨단 디스크 감압 시스템 치료기는 환자의 손상된 척추 디스크 부위를 정확히 조준해 압력 감소를 반복해 척추를 건강하고의 압력을 감소시켜 주위의 혈 액, 산소, 수분 및 여러 영양분 등을 원활한 공급을 돕고 그 과정에서 손상된 디스크가 정상 과 지기 피로하도록 도와 자연 치유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환자가 700명 넘는다는 것이 이번 진료의 설명이다.

윤동준 원장은 “척추 디스크 치료 전문으로 20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최첨단 치료기 4대에 의해 하프의 결과를 사후한 하프”로 “디스크에 고생하는 환자들”이 수술의 필요 없이 수복 다 훨씬 저렴한 비용과 통증 없는 치료 방법으로 보다 안전하게 척추디스크를 치료해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동준 척추신경병원-하미 디스크 병원, 최준환 원장, 원장 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통증 요통 등을 진료하고 있다.

8281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714) 539-1777***

하는 현 동문은 평생 추구해온 화의와 열, 추상적 구성, 동과 서, 전통과 현대의 중간지 기 속에서 긴장감을 놓지 않는 작품으로 비평가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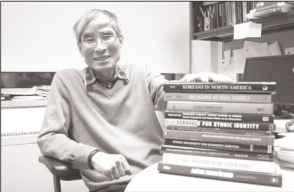
수채화부터 시작해 맑고 투명한 작업이 영혼의 정성을 불 태워놓는 작품들은 ‘서리 불 태워놓는’ 이번 전시를 비롯해 ‘열’ ‘하드’ ‘지치’ ‘어정’ 시리즈를 거쳐 ‘술’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관되 게 노래하고 있다.

현해명 동문은 로고 미술과 화의학과가 아카데미 오브 비전 인 아츠를 졸업하고 하프드 대학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50년 가까운 작가생활에서 개인전만 35회를 가졌으며 수많은 단체전 참여와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삼가 조의를 포함하다

▶박기서(법대 50) = 지난 1월 17일 LA에서.
▶조교경(법대 57) = 지난 해 12월 21일 뉴욕에서.
▶박정식(사대 59) = 지난 1월



민병갑 교수 미주류 언론서 집중 조명

1942년 충남 보령 민병갑 출생, 기자적 집요 30대에 유학길, 제의 한인연구자와 함께 한인 커뮤니티 성장 이끈다. 피부로 느낀 이민애환-이민사연구서 독보적 위치, 논문 100여편, 저서만 5권, 학계·주류언론서 집중조명

1903년 1월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이 미국에 첫발을 내딛던 뒤 지난 110년 동안 한인사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한인사회의 집요한 역할은 학계 연구부 대오로 최고 석학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다.

바로 뉴욕 시립대(CUNY) 켄즈 칼리지 민병갑(71·사회학) 석좌교수다. 민병갑 석좌교수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삶과 행적을 드러냈다.

뉴욕 독립선 켄즈칼리지 교수로 임명된 그는 233호 민교수의 연구집은 여전히 유효했다. 평생에 걸친 다양한 책들과 수백권의 자료들이 그의 연구방을 보여줬다.

민 교수는 평일부터 일요일까

지 늘 그 자리에서였다. 쌓여 있는 연구과제와 그의 켄즈칼리지 산하 '제의한인사회연구소'를 운영하는 끝이 없었다. 2010년 고수들의 최고 영예 중 하나인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에 오른 그는, 켄즈칼리지 내 12명 평민 명예로운 직위를 가진다는 그는 변함없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미 사회학회(ASA) 이민분과위원회의 지난해 평생 업적유지 부패한 학자에게 주는 최우수 공로상을 수여했다. 당시 ASA 측은 "민 교수는 이민사학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 미래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 중 한 명"이라고 평했다. 민 교수는 "학문적 배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기나코의 배를 민 교수는 1942년 2월 충남 보령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7남매 중 절친으로 형을 모두 잃은 뒤 한나 살아가게 되었다. 어머니께서 나와 9월 때 돌아갔다. 어린 시절은

▶인명갑 교수는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논문과 5권의 저서, 8권의 편집 저서를 냈다. 민 교수 자신이 출간한 책들을 보여주었다.

가슴을 이기기 위한 연옥이었다"고 회상했다.

고교 입시에서 1차 지방한 서울의 명문고에 떨어진 민 교수는 서울 동복고에 입학했다. 이후 가정교사를 하면서 영어 공부에만 매달렸다는 그는 대학(서울대)도 남았다. 대학과 흥진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졸업 후 2년 뒤인 63년 서울대 사회과에 합격했다. 대학을 졸업하자 영자신문 코리야 헤럴드가 기자를 시작했다는 6개월 만에 교수라는 이름을 걸고 1년 10개월을 일하며 생활을 해나갔다. 민 교수는 "돈 없이도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30대에 조지아대로 유학했다. 곧 조지아 주립대로 옮겼다.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을 기뻐했었다"라고 말했다.

▶박사학위 2개도 취득 했을 때 특유의 성실함과 아이디어로 그는 빠른 속도로 유학생활에 적응했다. 사회 석사학위를 받은 뒤 전공을 바꿔 79년 포항공립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학위 취득을 위한 고된 끝에 당시 한인들의 이민이 불법이었다는 관련 연구를 해 이라고도 결심하고는 사회학으로 전공을 또 바꿔 4년여 만에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 뒤 박사학위 2개의 학과과정은 100%의 면제 판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수를 없었다. 민 교수는 "이력서를 10개는 넘게 보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어느날 한 교수로부터 "(연방

정부 운영 비하의 부문 최고 권위기관인) 전국과학자대회(NSF)의 그랜트를 받으려면 곧바로 학계의 주목을 받겠"이라는 말을 들었다.

민 교수는 "그간장학을 하면서 1985년 그랜트 신청을 했고 1년 만에 8만 달러의 연구자금을 받게 됐는데, 이 순간이 내 삶의 최대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민사학 전문가로 NSF의 그랜트를 받은 민 교수는 "나스 연구"를 시작했다. 민 교수는 "UCLA 사회학과에는 이민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이민학자 라이트 교수 등 석학이 있었는데 특히 라이트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1987년 기해에 민 교수는 급하게 제1차로 왔는데 담당할 디렉터가 필요했던 것. NSF 연방자라는 난제를 던진 민 교수는 라이트 교수의 추천에 힘입어 켄즈칼리지 사회학과에서 교수직을 시작했다. 이후 '민교수는 미주 한인사학을 이끌어 나가는 학자'로 자리매김하며 '북미의 한인들, 21세기의 경험'을 편 집"을 출간했다.

▶2008년 또다른 분기점은 민교수는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만 5편에 필한 논문도 8편이나 된다. 여기에 800개의 미 인용학자들 한 기가가 붙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적'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한인사학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해배는 한 기가가 붙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적'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한인사학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해배는 한 기가가 붙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적'이라고 말했다.

중 상을 수상한 2008년의 역사 '경제적 생존을 위한 민족적 연대-뉴욕시의 한인 정치사'이다.

민 교수는 "이후 대학 학계와 언론은 '그간장학을 하면서 1년 만에 8만 달러의 연구자금을 받게 됐는데, 이 순간이 내 삶의 최대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민사학 전문가로 NSF의 그랜트를 받은 민 교수는 "나스 연구"를 시작했다. 민 교수는 "UCLA 사회학과에는 이민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이민학자 라이트 교수 등 석학이 있었는데 특히 라이트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민교수는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만 5편에 필한 논문도 8편이나 된다. 여기에 800개의 미 인용학자들 한 기가가 붙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적'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교수 워싱턴 목회연구회 특강

지난 1월 14-16일 카키오 산성에서 열린 '목회연구회 현대설교' 주제 세미나에서

워싱턴 한인 목회연구회인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에 버지니아의 카키오 산성에서 2013년 신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목회연구회 신년 세미나에서는 한국 침례신학대 설교학 교수인 이명희 박사가 '목회연구회 현대설교'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명희 박사는 모교 사대 생물학과와 침례신학대 신학대학원을 나온 뒤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한국침례신학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명희 박사는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를 설립하고 침례신학대 목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만가톨릭교회와 활동목사이기도 한 그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목회연구회는 신년 세미나에 앞서 13일 오후 6시 매릴랜드 장로교회에서 신년 해례회를 가졌다.

목회연구회는 지난 해 연말 총회를 열고 23대 회장에 서, 현존 매릴랜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선출한 바 있다. 당시 이는 신임 목회연구회장 취임 첫 행사를 실시한 것이다. ■

이정면 교수 아리랑 영문저서 출간

▶이정면 교수가 '아리랑 영문서 출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유대인 원로 지리학자 아리랑 소개 영문저서

들은 원로 지리학자 이정면(88·사건) 유대인 명예교수에게 유대인식 인문부형유신인 '아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 저서를 선보였다.

이정면 교수는 지난 1월 15일 출간한 '한국의 아리랑, 한, 슬픔, 희망(Arirang of Korea: Han, Sorrow and Hope - A Journey of Hope)'은 남북한과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이처럼 아리랑 본고장과 탐사 여행을 토대로 쓴 책이다.

이 교수는 "북극의 강제로 북한을 방문해 수집한 자료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아리랑이 남북 분리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자신한다"고 밝히기도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아리랑 3대 원로지를 수반한 담사해 2007년 5월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 여행'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2년 뒤에는 영문본 'Arirang, song of Korea'를 펴냈다. 단은 번역서라 아니라 외국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 이다.

이 책을 본 유엔 주제 북한인의 박종철을 접하면서 이 교수에게 강의를 권유했다. "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 이정면 교수는 "이제 '북한'의 아리랑이 아니라 '한'의 아리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자들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

후임자인 박철 창사관도 수차례 전화하며 박철을 추천했다.

2011년 10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 방문을 맡았다. 1주간의 북한에 머물며 북한 학계들과 아리랑 연구 성과를 논하고 각종 자료를 건네받았다.

"북한의 아리랑 연구가들과 저를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절은 일이었다."

북북한은 김제국(대세제임)이 부르면 이명희 박사가 정성을 띤 논문과 친척하고 시민들이 부르면 아리랑에 관한 연구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 설임 건도 버리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박철 열마리 뒤 중앙아시아의 다른 마을을 돌리보며 노인들로부터 아리랑 노래를 녹음해 책에 덧붙였다.

그는 "서러움의 진수는 북한 지역의 아리랑"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철 열마리 뒤 중앙아시아의 다른 마을을 돌리보며 노인들로부터 아리랑 노래를 녹음해 책에 덧붙였다.



조재길 세리토스 시 의원

오바마에 편지발송, 워싱턴 상하원 방문

한반도 평화위해 미주 한인이 나서야, 정전협정 60주년 '끝 나지 않은 한국전쟁' 끝내자'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시의 시장을 역임하고 시 의원으로 활동중인 조재길 박사(사대 61)가 지난 1월 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뒤 워싱턴 연방 상·하원을 방문했다.

조재길 박사는 올해가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에 전쟁상태가 6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참낼 수 없다는 실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촉구하며, 27 일기 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조재길 박사는 "지난 해 1월 말 2012년 윤비해는 주 하원의원 추대를 정고 2월부터 12월 2일 보스턴 마라톤 출전자격을 얻기까지 10개월 동안 출발 러기에 전념하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70대에 접어든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되일하게 고민했다. 그 결과 끝 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머나먼 조국을 위해 가장 급박한 과제는 신념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2714년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남은 임기와 겹쳐 두 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

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 편지의 사본을 연방 상·하원 의원에게 발송하고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과 전 미주 시장회의 참석자 워싱턴을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해 연방 상·하원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나 60년 이상 계속된 정전협정을 끝낼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 1월 10일 주미 주연방 의원회관을 찾아서나 있는 시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에서 조 박사는 워싱턴 연방 의원회관인 에드 로이스의 본관을 비롯해 린다 산체스, 알란 로버트 의원 등 4명의 하원 의원을 직접 만났다.

조 박사는 "마라톤 박사의 워싱턴(캘리포니아주) 보좌관 앨 노리스,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주) 보좌관 스캇 프라미스, 찰스 켄트 하원의원(뉴욕주) 비서실장 조지 헨리와 만나 김 보좌관 등을 만났는데 모두 한국전쟁을 더 이상 참낼 수 없다는 데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진구 미주 동창회 전 회장

미동부한국문예 작품 출판기념회 개최

이진구(농대 60) 미주 동창회 회장님이 지난 해 11월 22 일 뉴욕의 프러시 대문미술관에서 미 동부 한국문학협회 회원들의 작품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출판기념회는 '2012 뉴욕 문학'을 타이틀로 이진구 주

회장은 현재 미 동부 한국문예 협회의 회장으로 재임 중으로 이같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미 동부 한인문예협은 한글 고교생인정에서 입성한 학생과 교사에게 시상식도 겸해서 거행했다.***

젠스 아카데미 쟈슨 원장 SAT설명회

SAT 전문 학원인 '젠스 아카데미(원장 쟈 J. 신)'이 지난 2월 3일 'SAT 고득점 노하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SAT 진로 컨설턴트 J. 원장이 직접 강자로 나서서 진행했으며, 9-11학년 뿐만 아니라 6-8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모두 할

게 실시했다. 쟈 J. 원장은 모교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주 입학처장위원회의 동문 인가 부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전화: (408)981-1760 JenSAT2400@com.net***

로마의 귀뚜라미

프랜시스

본 조르노 로마

박영숙 시인



출판사: 북소

박영숙 시인 '로마의 귀뚜라미' 출간

50여년 발표해온 작품과 문예 등 103편 시 수록

중풍으로 9년째 투병중인 뉴욕 시인 박영숙(82) 시인은 시집 '로마의 귀뚜라미'(울리북 북소출판)를 지난 1월 출간했다. 이 시집은 박영숙 시인의 지난 50여년 동안 발표된 작품과 문예 50여년간 활동해온 발표해온 시 작품들 중에서 골라낸 시집과 아울러 장편 시사시인 신작시 '본 조르노 로마' 등 모두 103편의 시를 모았다. 뉴욕 클라리 유니온플라자 케어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박 동

문은 지난 이후 지난 2010년까지, 5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계속 써 온 시 작품들 가운데 103 편을 골라 시집으로 묶었다. '비어있는 도시', '수목영가', '날지 않는 새' 등 오랜 세월 시인의 삶에서 녹아든 시를 접할 수 있다.

1960년 충북 청원에서 태어난 박 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뒤 1969년부터 해외 통신원으로서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에 거주해 도화정을 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뉴욕 부사에게 근무한 바 있다. 2004년부터 중풍으로 투병중이다.***

권현익 교수 '극장국가북한' 출간

영성 글루는 권력자...극장식 정치는 대중적 연인

북한의 대표적 인물 김대중 공인 "아리랑", 백두산에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수많은 참주자가 무용을 하고 있다. '극장국가 북한'은 예술적 가치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카리스마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이 책에서 보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북한의 3대 실험은 국제사회를 겨냥한 '지상 최대의 쇼'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대외적 행사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불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많은 주민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암약과 투쟁을 견뎌내고 국을 살출하는 시대에 권력을 유지해 온 북한의 속내가 드러난다.

마침 이 절문에 해당하는 실마리를 주는 책이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칼리지의 동문 권현익(문리대 사회학) 석좌교수와 정병로 한양대 문리대교수, 교수이자 5년간 공대 정치학자가 아닌 인류학자가 참신한 시선이 돋보인다.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이론을 방편해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인류학의 원형연구가 불가능한 북한을 저자들이 연



구 대상으로 삼은 계기는 2000 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주의 단체원칙으로 평양을 방문했던가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떻게 이런 '극장국가'가 있었는지 연대원에게 묻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조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이다. 우리는 중요하다고만 굶주림을 참고 목숨을 걸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보다. 유진희는 정치란 말이 무엇이며...

저자들은 인류학자 클리프드 기어즈가 창안한 '극장국가'라는 개념을 빌려 북한의 정치를 분석한다. 기어즈는 19세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왕이 강제로 수많은 민원을 통치하고 지배를 위해 연극을 통해 왕이 세상의 중심임을 과

시함으로써 왕의 정치적 권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아리랑공연과 혁명극으로 대표되는 집단 예술 공연, 신성 영화, 대규모 건축을 통해 사도 북한은 뚜렷이 극장국가의 연장을 구축했다.

김일성이 죽은 지 20년이 돼가고 그 사이 3대로 세습된다면 북한은 여전히 살아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 권력'의 필연적 종말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셈이다. 베버는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반을 둔 카리스마 권력이 위기 때 등장한다

가 서면치 사라져 '전통적 권력'이나 '합리적·법적 권력'으로 대체된다고 주장했다. 이

는 옛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증명됐지만 북한만은 예외다.

저자들은 북한이 카리스마 권력의 비영속성을 넘어 3대째 권력 세습까지 이뤄낸 비결을 극장국가적 기적에서 찾는다. 여기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차이는 연대원에게 묻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는 중요하다고만 굶주림을 참고 목숨을 걸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보다. 유진희는 정치란 말이 무엇이며...

저자들은 인류학자 클리프드 기어즈가 창안한 '극장국가'라는 개념을 빌려 북한의 정치를 분석한다. 기어즈는 19세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왕이 강제로 수많은 민원을 통치하고 지배를 위해 연극을 통해 왕이 세상의 중심임을 과

미국의 초대 학부 Brown University (공대기) 교수

“한 우물을 파고 드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해요”

Nano Techonology 창시자, 호암상·Engineering Science Medal, 관악대상 ‘영광상’ 등 수상

지난 여름 알래스카 크루즈에서 제12회 평의회 회의를 가졌고, 여기서 서울에서는 임광수 총동창회장이 오셨고, 행사 중의 하나로 모교 및 동창회에도 공로가 있었던 동문들을 대한 임광수회장의 공로로 수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올해 총동창회에서 매년 3명의 등재에 관한 수여하는 관악대상을 수상하게 된 임광수 회장이 그 공로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회에서 모교의 명예를 높인 공로로 수여하는 해외부문상을 수상하게 된 동문으로 모교 동창회 수상상에도 가장 많았고 또한 평의회회에서도 오지 않아, 그 상장과 부상을 미주 동창회에서 받았다가 본인이 직접 전해주라는 임광수 회장의 말씀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으리라 하던 임광수 회장이 생각과 학우들의 총동창회장을 소개를 받고 본인과 연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전하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동안 생각해 전하지 않고 있던 임광수 회장이 2년 전 임박치면 본인 이 Los Angeles와 가까운 San Diego에 와서 참석하러 오기

가 있다고 만나서 직접 상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백 국강이 확인해보니 나의 고등학교 교장(경기도) 후배들이 Brown University 교내 임광수 동문(공대기 70학번)이라고 한다.

모교의 관악대상 특히 해외부문상을 가질(70) 경자하는 동문이라면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Brown 대학에서 오래동안 교수생활을 한 동문이라면 취재할 가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San Diego에서 회의를 끝난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갑자기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취재는 별 관계가 없었고, 기록은 사후추진기 하였다.)

2시간 가까운 운전을 하여 회의가 있다는 San Diego Marriott Hotel에 도착하여 전화하니, 부인이 받는다.

아직 회의를 끝나지 않았으니 먼저 가까운 식당에서 자리를

잡자고 한다.

결국 호텔안에 있는 식당에 자리를 잡고 먼저 부인과 인사하고 얘기해보니, 부인(오세자)도 서울대 동문(문리대 수학과 71학번)이고 현재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 수학과 교수이며, 오빠가 나와는

고등학교 동기야 된다.

만남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데 드디어 김정철 동문이 나오니,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다.

—먼 돌부터 서두어 있는 San Diego까지 회의 참석자 오셨는데 중요한 모임이냐.

작년 초에 우연히 Korea US Corporation Center에 방문한 이후 2년 임박치면 U.S. Korea Conference (UKC)를 지원하고, 한국계 학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Korean War Veteran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저 한 우물만 판게 바로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고의 경지로 목표를 잡아 결정했으면 독심있게 밀고 나아가는 우직한 추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비귀학기술자 협회에도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오세자 회장이 늦게 끝난 것도 장악금 약속을 의논하고 결정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미 만제가 된 문헌을 얘기할까요. 여기 관악대상 해외부문상의 상장과 부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소감과 상을 타려면 동기를 얘기해주시지요.

상장과 금메달이 술이 들어 있는 노란이 봉투에 있고 또한 연필같이 말쑥하신 은 주머니에 달린 흰 끈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상은 정발로써 있었던 시절에도 힘을 모아 서울대

학의 교육을 뒷받침해 주신 여러분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저 같이 팔 팔 모르는 사람들도 평생동안 학문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도해 주셨던 모교 은사님들의 은덕을 기리는 뜻 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모든 은사님들 특히 제라리를 탐구하고 교육하기에는 이덕식 교수님, 또한 지난 몇 년간 저와 공동 융합연구를 해온 모교 그리고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과 Brown 대학의 연구원들 및 교수님들을 기리고 싶습니다.

비록 파지 못할 사정이 있었지만 이런 뜻 깊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교 총동창회, 임광수 총동창회장님, 심사 위원님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오세자 회장과 금메달을 전해주신 사후추진장과 총동창회장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공 및 브라운 대학에 대해 질문해 주시지요.

저의 전공은 공학(학(Engi-

neering Science)입니다. 이 분야는 주로 과학과 공학을 융합하는 학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는 공학(Engineering)과 과학(Science)으로 나뉘어 주조제간의 접착 및 마찰 비침착을 접합하는 데 노력했었고, 최근에는 ‘주름억력(Snap Mechanics)’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름억력은 크기는 산맥주름부터 뇌주름, 얼굴주름까지, 작게는 세포 및 Nano주름 등 전 반적으로 주름의 성질을 전공하는 학문입니다.

이 공학(학)은 그나마 천천히 부도임제 병행하고 접하는 것은 Computer 등 비례형 전기기술이나, 재해 방지 및 복구용 Soft Robot, 부드러운 Advanced 의료가기 등 비례형 기계를 만드는 데 관심이 되는 학문입니다.

Brown 대학은 New England의 아랍만 도서 Rhode Island주 Providence에 자리한, 미국 독립(1776년)보다 12년 먼저 설립된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사립대학입니다.

이곳에서 기르는 서울간이 4 계절이 뚜렷하며, 학교 Campus는

—김정철 박사 가족이 함께 들은 나들이를 했을 때의 정겨운 모습이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철 박사, Clare 부인 오세자, Eunice, 장녀 Irene.



San Diego 한 레스토랑에서의 김정철 박사와 오세자 부부

미교적 작고 차분하지만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고 교육하기에는 이덕식 교수님, 또한 지난 몇 년간 저와 공동 융합연구를 해온 모교 그리고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과 Brown 대학의 연구원들 및 교수님들을 기리고 싶습니다.

비록 파지 못할 사정이 있었지만 이런 뜻 깊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교 총동창회, 임광수 총동창회장님, 심사 위원님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오세자 회장과 금메달을 전해주신 사후추진장과 총동창회장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공 및 브라운 대학에 대해 질문해 주시지요.

저의 전공은 공학(학(Engi-

neering Science)입니다. 이 분야는 주로 과학과 공학을 융합하는 학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는 공학(Engineering)과 과학(Science)으로 나뉘어 주조제간의 접착 및 마찰 비침착을 접합하는 데 노력했었고, 최근에는 ‘주름억력(Snap Mechanics)’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름억력은 크기는 산맥주름부터 뇌주름, 얼굴주름까지, 작게는 세포 및 Nano주름 등 전 반적으로 주름의 성질을 전공하는 학문입니다.

이 공학(학)은 그나마 천천히 부도임제 병행하고 접하는 것은 Computer 등 비례형 전기기술이나, 재해 방지 및 복구용 Soft Robot, 부드러운 Advanced 의료가기 등 비례형 기계를 만드는 데 관심이 되는 학문입니다.

Brown 대학은 New England의 아랍만 도서 Rhode Island주 Providence에 자리한, 미국 독립(1776년)보다 12년 먼저 설립된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사립대학입니다.

이곳에서 기르는 서울간이 4 계절이 뚜렷하며, 학교 Campus는

모든 준비와 진행을 이 분들에게서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승환·박영희 선생 부께서 도맡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례는 고 차승만 교수님, 신부 아버지 역할은 고 강경식 교수님, 사죄는 권해진 선생님, 피아노 연주는 윤은용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70년대는 아직 한국이 어려운 때이기도 했지만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생활을 기성하고 공부하기 위하여 대부분 짐 소했었고, Brown대학에서는 이미 전례 몇 번에서 세수선이란 결혼식 전통을 하고 있었

습니다.

주말이면 유학생들 사이에 몇 안 되는 자동차로 일일적인 몇 안 되는 것들을 시장 파고들 공 부에 매달린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저는 미국생활에 익숙해서 여러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분들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런 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Caltech에서 지낸 시간은 비록 짧은 1년이었지만 Rocket에 관한 연도도 해 보고 Richard Feynman 교수와 대화도 나누며

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초년 교수생활을 보낸 Illinois 대학교 제직 시절에는 New York에 있는 IBM 연구원들과

그로서 저는 IBM 연구원들과 Caltech 항공공학에서 Post Doc으로 연구한 뒤, 1980년대 말부터 Illinois 대학교(Urbana-Champaign)에서 물용 역학학과에서 조교수·부교수로 근무한 후, 1989년 7월에 다시 Brown 대학으로 정교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르는 서울간이 4 계절이 뚜렷하며, 학교 Campus는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서울서 저와 약혼하고 한 학기 먼저 Brown대학에 유학 오게 된 Clare와, Campus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하객은 물론

<22면 계속>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중부텍사스지부



중부 텍사스 동창회

예수찬양교회서 정기총회 겸 신년회

중부 텍사스 동창회가 지난 1월 19일 어스틴의 예수 찬양교회에서 제2차 정기총회와 함께 신년 모임을 가졌다.

3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모여 식사하며 친교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식사 후 가진 음대 동문들이 주축이 된 소음악회는 우리 동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김규환 동문의 '남촌', 조두남 동문의 '빛노래'와 이달리아 가족 'O Sole Mio'를 연호정 동문(음대 06)의 반주에 조은득 동문(음대 01), 위정문 동문(음대 02)의 멋진 화음으로 감상했다.

이이 마스네의 '타이스 땅상곡'과 성상소의 '백조', 기독교 성가 '나같은 죄인 살리신'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평효정 동문(음대 00)의 피아노와 성경주 동문(음대 09)의 바이올린, 그리고 조영 연주자 서준님의 첼로 연주로 들었다.

멋진 연주에 모든 동문과 가족들은 환호하였고 축석에서 위정문 동문께서 영광요청에 화답하였다.

교가제창으로 소음악회를 마쳤는데 학생 시절에도 자주 불러보지 못했던 교가를 52학번에서 04학번까지 모인 자리에서 함께 불

↑중부 텍사스 동창회 동문들이 총회 후 기념촬영했다.

→음대 동문들의 멋진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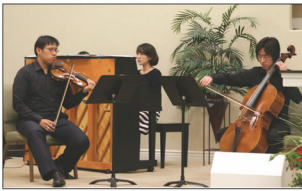
러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어 열린 제2차 정기총회에서 그간의 활동보고와 함께 중부 텍사스지부 회칙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부회장으로 추고한 김성근(법대 78)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손정철 동문(음대 52), 이영재 동문(상대 58), 이학호 동문(농대 50) 및 김은영 동문(가정대 77)을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이이 회원 각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간 미국에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다음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 모임을 마쳤다.

동창회 결산에 열심히 수고해주



더욱 빛나주시 음대 동문들께 감사의 드리며 더욱 활기차고 발전하는 중부 텍사스 동창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음악회장 김성근(법대 78)>



북가주 동창회

캐슬우드 CC에서 송년 모임 가же

"새해에는 더 행복하세요!" 북가주 동창회(회장 이장우 문리 72)가 송년 모임을 지난 12월 12일 15일 캐슬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했다.

비 오는 곳은 날씨에도 100여

명의 동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송년모임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정기 총회에서는 이장우 현 회장이 앞으로 2년을 더 헌신하는 사안과 함께 회계 보고를 보

<북가주 동창회 동문들이 기타 연주에 맞춰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탕해 등을 함께 부르고 있다.

두 통과시켰다.

신임 이사장에는 홍정삼(문리대 81) 동문이 선출됐으며 김광수 전 안양교 회장과 박덕희 간호대 회장이 신임 이사로 임명됐다. 지난 4년간 이사장으로 재임한 황만익(사대 80) 동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이날 총회는 북가주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미래 동문들이 미래를 전시기와 보고도 함께 있었다.

2부는 여흥과 오락시간으로 진행됐는데 이 순서에서는 동문 부인들의 화관부와 우정준연한 황금희씨의 부채춤, 한국문화원(고미숙 원장)의 잘 공연 등으로 행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또한 공대 60학번 동문 5명(김길근·김철규·노성규·유영훈·정조웅)의 동문들이 부인들과 같이 나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랑해' 등을 기타 연주와 함께 불러 더 배수를 받았다.

이날의 큰 성공을 은 조은득 동문의 피아노와 생황으로 이루어진 국악 연주는 동문들의 심금을 뒀

었다.

북가주 동창회 2012 송년모임은 이 외에도 동문들의 장기차량과 경품추첨 등으로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됐다.

<글 사진= 임승재(문리대 06)>



위원장 DC, 동창회

웨스턴 호텔서 송년잔치 가져

위원장 DC, 동창회(회장 함은진)가 지난 해 12월 30일 '2012 송년잔치'를 가졌다.

지난 2012년에 이어 타이슨스 코너에 위치한 웨스턴 호텔 볼룸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동문 130여

명, 학창금을 수여했다. 박영삼 동문은 자체 개발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개발 결과보고와 시연회를 해 보였으며, 오인환(문리 63) 차기 미주 동창회장은 6월 취임식 10여에서 개최된 예정인 2013 전국 동창회대회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설명을 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 하이라이트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마술사를 초청해, 마술쇼를 40여분간 펼쳤는데 모든 동문들이 인정한 마술사의 손 움직임을 보고, 마술사의 손 끝에서 나오는 신기한 불꽃 색의 손수건, 종이 나비에 환호성 울림이 찬란을 보였다. 또 플랜의 명예동문(고 이종삼 동문 부)이 보낸 '달이 아'도 모든 동문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알찬행이였다.

정,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영삼 동문은 자체 개발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개발 결과보고와 시연회를 해 보였으며, 오인환(문리 63) 차기 미주 동창회장은 6월 취임식 10여에서 개최된 예정인 2013 전국 동창회대회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설명을 해 주었다.

이날 행사에 하이라이트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마술사를 초청해, 마술쇼를 40여분간 펼쳤는데 모든 동문들이 인정한 마술사의 손 움직임을 보고, 마술사의 손 끝에서 나오는 신기한 불꽃 색의 손수건, 종이 나비에 환호성 울림이 찬란을 보였다. 또 플랜의 명예동문(고 이종삼 동문 부)이 보낸 '달이 아'도 모든 동문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알찬행이였다.

특별 잔조로 부부 기념촬영 부스를 설치해 정창자의 부부사진을 촬영하여 귀가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동문들이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해마다 여대 동문회장들이 내놓는 술안주와 동창회에서 자체 마련한 상주로 배운추천, 라플 주주로 수성자가 발표될 때마다 환호와 아쉬움의 소리로 장내 열기를 뜨겁게 했으며, 특별 초청된 전문 MC의 힘으로 끝없는 동문들이 무대에서 만난 씨의 '강남스타일' 발을 시범으로 박수를 끌어냈으며, 중간중간 각종 퀴즈와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순서 말미에 월드스타의 할상을 부트며 2012년의 모든 행사를 열도 동문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알찬행이였다.

<부경정 정경희(사대 79)>

이문열 새창문화회

시문열 동문인 문학 콘서트 3월 개최

지난 해 제8회 새창 작문경연대회 수필 부문에서는 미국의 고교생 및 대학생들이 동문 이문열 작가의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영문 번역판 Our Twisted Hero) 전문을 세장 웹사이트에서 읽도록 했다.

그리고 이 고교생 및 대학생들이 수필을 쓰도록 하고 또한 미국내 여러 고교 영어 교사들이 이 소설을 수업시간에 사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문열 작가의 문학 세계에 접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다.

이 학생들은 작품 'Our Twisted Hero'를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Animal Farm'이나 '1984', Shakespeare의 'Julius Caesar', 또는 Ayn Rand의 'The Fountainhead' 등의 소설과 라쉬의 혁명(Boshevik Revolution, Red October Revolution) 등의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서 권력에 대한 인간의

본한 한국 문학들이 미국 사회에 더욱 알려지기를 바라며 한국 문학 번역원(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Seoul Korea)의 특별 후원을 받아 이문열 작가들 시카고에 초청해 3월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게 됐다.

▶3월 7일 = 이문열 작가 Lake Forest Academy를 방문해 'Our Twisted Hero' 소설을 수업에 이용한 3개 학급의 수업시간에 초청되어 강연과 미국 학생들과의 직접 간담회를 갖는다.

▶3월 8일 =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Global 시대의 한국 문학'을 주제로 이문열 작가와 학자 및 출판계 인사들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학자는 Columbia 대학에서 한국 문학의 가르치는 Theodore Hughes 교수, 출판계 인사는 많은 세계의 소설들에 대해 번역과 출판에 하고 있는 비영리 출판사 Darkey Archive Press의 John O'Brien 디렉터이다. 이 분들을 모시고 이마에 있는 일문열이 주립대학(IUC)에서 심포지엄을 갖는 것이다. 이 심포지엄이 아사장 Signing을 실시한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 UIUC Asian Study Group의 Nancy Ablemann 교수와 UIUC 한인학회가 적극 후원을 주었다. 심포지엄은 영어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입장은 무료다.

▶3월 9일 = 오후 7시 30분부터 시카고 한인 동포들을 위해 한일 클럽하우스 호텔에서 '이문열 문학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한국 최고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역시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입장은 무료다.

▶3월 10일 = 오후 1시 30분부터 이문열 작가들 모시고 환영 만찬회를 우드랜드(3201 W. Algonquin Rd., Rolling Meadows)에서 갖는다.

회비는 50달러이며, 과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의 비자는 새창문화회 웹사이트(www.sejongculturalsociety.org)를 통해 지불하거나 새창문화회(Sejong Cultural Society, 606 Forest Road, Glenview, IL, 60025)로 보내 주면 된다. 문의는 새창문화회(Sejongculturalsociety.org) 웹사이트, 또는 전화 312-497-3007로 한다. <<새창문화회 이사장 김호범(상대 69)>

인류 문화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한 이야기

3월 9일 토 7:30pm
원림 글렌뷰 호텔
1400 Milwaukee Ave. Glenview, IL
입장료 무료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 동창회

더블트리 호텔서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 동창회가 지난 2월 9일 Double Tree Hotel에서 2013년 정기총회 및 선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개사년 구정 설날맞이 동문 대축제로 마련됐다. 동문 모두가 우리 민족 전통의 한복을 입고 참가토록 해서 한복 뽀시 대회가 열렸던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동문 연극팀 관악대의 기상천외하고도 포복 절도한 멋진 연극 공연을 벌여

큰 인기를 모았다.

동문 Rock Band Curly Fries의 신나는 브로트 메들리로 행사장을 신명나는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 한때로 신인 총무국장의 사퇴로 진행됐는데 기존의 기호 신인을 비롯한 행사적 객석을 최소한으로 줄여 줄이면서 2부의 여흥시간에 중점을 두었다.

남가주 동창회 서처전 회장(뒷줄 왼쪽)과 신임 김상현(오른쪽)회장이 미주 동창회석으로 와서 지인수 편집위원장 부부(앞줄 왼쪽),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 백옥자 총무국장과 함께 기념촬영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처전(플래 69) 전임 회장의 퇴임 인사에 이어 김상현(플래 66) 신임 회장에 대한 인준이 이루어진 후 취임 인사말이 있었다. (아래의 취임 인사 참조)

2부 여흥시간에서는 윤금자 동문과 이경희 동문의 더블 MC 사회자가 진행했다.

지난 해 첫 공연을 벌여 대단



한 성과를 올린 연극팀 '관악의 성'과 '관악골' 2대 이장 선거 공연이 어울려 다시 펼쳐진 것이다.

이어 한복 뽀시 대회가 열렸으며

제기자가 대회에 이어 Curly Fries가 분위기를 띄워줬었다.

특히 연극팀 '관악골'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관악골' 2대 이장선거 후보 토론회를 바우 휘트니스와 유머러스하며 코믹한 대사로 분위기를 이끌어 힘찬 박수를 받았다.

Rock Band Curly Fries는 이번에는 참가 동문 모두가 친숙하게 들릴 수 있도록 대중가요 위주로 공연해 무대를 한층 흥겹게 했다는 평이다.***



신임 김상현 회장 취임인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헌신 다할 터"

우리 생활에 행복이 좋은 것 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행복 중에 첫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가족 즉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형제자매간의 사랑, 친구 친지와와의 사랑, 종교적인 사랑 등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친교'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친교에서는 인간살을 서로 만났고 부딪히며 대화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남가주 동문들의 모임이 모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을 이루는 자라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남가주 동창회장으로

토사의 소임을 맡은 이상 열심히 할 것입니다.

모든 노력들 기울여 동문들을 위한 행사를 미리 준비하고 알리도록 양분없이 헌신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임원진에서 비록

서로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다독이려 주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데 어울려 할

것입니다.

그대들 올 2013년 개사년은 우리 남가주 동창회가 정말 멋진 모임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 한 해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기의 도가니 '관악골 이장선거' 공연

이날 '관악골 이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 대한 공연은 참가 동문들로 하여금 배움을 받게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동문들이 마치 고생관 동문은 기호 2번 연지 봉출하리거나 출마에 관계했던 인사들의 모습을 김상현의

하게 변화한 모습과 연명으로 참가 동문들을 웃음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것이었다.

이날 신혜원 동문은 기호 1번 세날라리랑의 바우대 후보, 김국경 동문은 기호 2번 연지 봉출하리거나 출마에 관계했던 인사들의 모습을 김상현의

안길수 후보로 분장했다.

또한 이상실 동문은 기호 4번 파진조아라와 이정화 후보, 서치원 동문은 기호 5번 천국도래의 허경년 후보로 분장을 하기도 나왔다.

이들은 각각 이장 후보로서의 철학과 용담, 토론을 벌였는데 그 내용이 고국의 지난 대선 과정과 아주 유사하며 도록 코믹하게 풍자한 것이다.***

226호 2013년 2월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록비·기타 후원금(*2012년 7월 1~ 2013년 2월 25일까지)

**2012.7월 이후
동창회비 납부**

[illegible]

*동물께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
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근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
에 보내주십시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원안후원금		동창회비 (구독료)		업소측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특별후원금					
연\$500	☐	2011-2012년	\$75	☐	연\$500	☐	2012-2013년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2012-2013년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2012-2013년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75	☐	연\$1,000	☐
기타\$		☐	2012-2013년	\$120	☐	기타\$	☐
연\$500		☐	2012-2013년	\$75	☐	연\$500	☐
연\$1,000		☐	2012-2013년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Mackone Development Inc.
왕대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HNK Tech,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동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태(공동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상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g@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공동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우 김광국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동 69)
(213) 516-138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5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6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이광원 공인회계사
이광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dondo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Jung Mo Park & Co
박정모(문리대 66)
213-383-1390
3255 Wilshire Bl. #1700 LA. CA.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동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p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632

AN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상대 73)
(213)380-3801
386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리테일러/보석/무역

한남재인 (리테일러/상패)
하기원(공동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세계보석
김광철(공동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영 (공동 65)
(714)731-2776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yahoo.com

ALG USA
하상원(공동학원 90) 310-323-3331(C)
213-700-1500(C), 310-323-3338(Fax)
www.ALGUSA.NET. thomas@algusa.net

변호사/법률사무소

김동산(법대 59)
무안법률고문그룹
Prepaid Attorney Service Corp
1.800.800.0246
3030 Wilshire Blvd. Suite 2000 L.A. CA 90010
www.pasc880.com

신해원 변호사
신해원 (시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우주개발/기술

JAY H. CHUNG, Ph.D.
TAYCO SPACE/SPACE, INC.
Spacecraft - Aircraft & Missile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훈(공동 64)
3425 Wilshire Blvd. P.O. Box 9034
Covina, California 91724
Tel: 916-960-2280 Fax: 1-714-960-2242
http://www.taycoinc.com

LinkTV Media.
김원택(공동 65)
818-768-5494
P.O.Box 1388 Sun Valley, CA 91352

교육/학당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322
19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서비스/자동차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시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Vermont Automobile
권기성(관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동 76)
(413) 673-4731
4132 Buford Hwy Doraville GA 30096

엔지니어링/ 법인/ 리테일러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인수(공동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한미 교육 연구원
김종환
Korea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Center
김종환
4975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48
Tel: (213) 384-4274
Fax: (213) 384-4272
hmc@hameducation.com

Cake House
홍성국 323-766-0404
325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Teamsprit
(Investment & Development)
Jennie Chong Lee 이종요(간호69)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207 Irvine CA 92606

재경/ 보험

Hansol
Financial & Insurance Marketing Inc.
정지선(상대 58)
2910 Telegraph Ave. #200, Oakland CA 94609

수의학/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232-95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원(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사)대 73명생리강
718-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도발)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공인회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윤희(성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경원(성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학대 64)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nd Suite #502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리태일터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연봉익 변호사
* 연봉익(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Tai Cho, Attorney at Law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914) 762-0432
445 5th Ave., Suite E New York NY 10016
taicho7@ol.com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현(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코스모 부동산
이재덕(법대 60) 201-944-4949(O)
(201) 784-3367(C)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Nothern Realty
김은희(간호대 71)
(718) 229-4500, (917) 686-3360
45-22 Little Neck PKWY #5 Little Neck
NY 11362, unicekim RE@gmail.com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의료/내과/전문업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60)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사역/사업/법인

Women In Need Center
무지개의 집 여성 임시쉼터
김은경(음대 82)
P.O. Box 540329 Flushing NY 11354

NV 네바다

의료/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정중(치대 66)
702-394-2828 702-46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dental1.com

OR 오레곤

Fi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9-3393
P.O. 7416 Beaverton OR 97007

* 월별 한인교회
최근배(법대 63)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동맹병원

GREGORY K. JOD, D.V.M.
MICHELLE CAMPBELL, V.M.D.
JOAN CARROLL, V.M.D.



COTTMAN AVIAN HOSPITAL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37
Tel: (215) 728-0032
Fax: (215) 728-0032
Email: cottmangr@gmail.com

주거복(숙대 68)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94-342-0200
50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022

“웃으며
살시다”

★ 충고 ★

젊은 부부가 벽화점에서 어떤 도자기 그
릇을 살지 궁리하고 있었다.

wall 점점에서 바라보던 노인이 남편을
살파 물고거더니 말했다.

“젊은이, 평면 땅은 대로 게일 비한 걸로
사야 하오. 4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
본 사람의 충고요. 당신에게 살거지를 사
키는 일은 절대 없을 터이니 투자할 가치
가 충분하잖소?”

★ 노후자 ★

영월이는 혼자를 걸린 노후자이다. 보
여주는 여자가 어머니가 피자를 놓기 때
문이다.

그러자 친구가 충고를 했다.

“나의 어머니를 꼭 같은 여자를 보르드
피어!”

과면! 외모, 말씨, 웃자임, 취미까지 어
머니와 비슷한 아가씨를 데려오자 어머니

는 무척 좋아하셨다.
하지만 또 실례! 결국 결혼은 또 이뤄지
지 않았다.

“어머니 마음에 들었더니서 도대체 어
떻게 된 거냐?”

“음, 이만한 아버지가 걸사 반대를 하
서요-- 또 깨졌어.”

★ 성공한 투자 ★

어느 날 아침 식탁 앞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자기가 증권에 투자한 결과가 좋
게 앞다면서 우는 소리를 냈다.

아내는 아내대로 요즘 새로 시작한 다이
아드가 뜻대로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아내는 과거에도 여러 번 다이아드를 시
도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투덜투덜하며 증권시세
를 보다가 아내를 힐끗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투자한 것 최고 값절로 불어난
것은 당신 밖에 없구려.”

★ 여행사의 서비스 ★

한 여행사에서 항공여객기를 자주 이용
하는 비지니언들을 위해 요금 할인

실시하였다.
그것은 ‘구인과 함께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 부인의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 주
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금 할인제를 이용
하고, 몇 달 후에 여행사에서는 서비스 차
원에서 각 가정으로 편지를 보냈다.

“남편과의 즐거운 여행이 되었기를 바
랍니다. 앞으로도 자주 저희 여행사를 이
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여행사는 부인들
로부터 큰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무슨 여행이요?”

★ 한 개는 네 것, 나머지는 아
빠 것

어느 아주머니가 무더운 여름 날, 다섯
살난 아들을 꼭꼭 안고서 웃고 웃고
보니 고구마 또래 애들보다 너무도 작아
보였다.

무척이나 걱정이 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비뇨기과를 찾아갔다.

“선생님, 제 아들 고구마 너무 작은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매일 따뜻한 도넛 한 개씩을 먹이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아주머니는 그 즉시 아이를 데리고 도넛
가게로 갔다.

“따뜻한 도넛 여섯 개만 주세요.”

그러자 열에 있던 아들이 물었다.

“엄마, 한 개면 되는 것 아니요?”

“아나, 한 개는 네 거지만 다섯 개는
아빠 줄거야.” ***



원고를 ...

동문들의 지나온 과거를 그리
는 연계를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김태환(문
리대 60) 동문은 이어 권은희
(석충영양학과 87) 교수와 유
전환기(없는 삶) 연대 가 4월
도 문을 열고 지난 해 10호부
터는 게재되지 못했다.

이는 동문들께서 여기에 마땅
한 글을 아직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자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발간 이용해주시
기 바란다. *** <편집주간>

'편집주간'

○...동창회보는 학회지
나 학술 전문지와 구분
해 주기쁨은 또 동문으로
부터 이의 계기를 받았다
다. "내 글을 게재하는
데 있어서는 'Referen
ce' 까지 배제 말고
모두 실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 동문의 글
은 학회지, 또는 학술
전문지에 어울리는 논문
이였다. 따라서 서론-본
문-결론에 따라, Refer
ence가 있었으니 동창회
보에 모두 게재하면
되나 단

4-5페이지로 줄여도 모
자랄 판이였다. 동창회
보는 학회지나 전문 학
술지와는 성격도 작성이
다름을 설명해도 막막하
다였다. 또 다른 동문은
<단 단의 행사 수임
과 지출 명세서 결산산
고 회 계제되지 않
> 고 했다. "과거의
계제될 수 있는 모든 계제
수임과 회 계제되는 안
되느냐"는 것이였다.
과거 비전문가들이 제작
하던 동창회보는 분명히
전문 일이 이었다. 논문
을 전문 그대로 전제는
일인 물론 각 지역 동창
회나 단체의 수입과 지
출 명세서, 연말 결산 등
아주 사소한 사실까지도
기사난에 모두 게재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은 동창회보 기사난에
까지 취급될 사안은 분
별히 아니다. 단 학술
계정방식의 시의에 적합한
이슈나 특집 등에서는
계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정확한 전
문을 그대로 모두 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편집
과정을 통해서 게재되는
것이이다. 더구나 수입 지
출 명세서 연말 결산 같은
사안은 기사 지면이
아닌 광고지면에서나 계

제될 일이다. 이같은 사
실을 분명히 구분해주시
를 부탁드린다.

○Acropolis가 사
가 너무 많다. "동창회보
에 웹사이트 Acropolis
기사를 너무 자주 이용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제까지도 받고 있다.
Acropolis는 잘 알려진
이었다. 원래 LA에서
발간하던 동문들을 중시
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
동중인 웹사이트다. 따
라서 종종 좋은 글이나
기사 내용 같은 것들이
소개되곤 한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가 젊은 세
대들에게는 잘 알려지

었지만 비교적 연세 지
났을 동문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컴퓨터
화면보다는 아예 종이
인쇄 지면이 시작적으로
편한 편하다는 동문도
많다. 그래서 많은 동문
들이 이 웹사이트와 글
도 동창회보를 통해 더
한 동문들에게도 공유하
게 하라는 의견을 개진
해왔음에 따라 동창회보
도 인쇄본에서도 일리가 있
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
게 결정된 것이다. 그리
니 이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편집주간>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상천(문리 66) 714-396-0493 skcm@rockwellcollins.com
자치회장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c-nc.org
자치회장	박희태(한호 73) 831-818-2959 acubeere@hotmail.com
뉴욕	회장 김창수(약대 64) 212-760-1788 changsokkimcpe@hotmail.com
자치회장	박상일(문리 69) 917-327-2989 sangparkny@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정선주(간호 68) 781-676-2988 yoonjpark6@yahoo.com
자치회장	장수진(음대 76) 978-264-2998 sc11nhee@comcast.com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 469-235-6196 junlee41@yahoo.com
자치회장	윤수경(음대 77) 972-248-8811
텍사스 마운틴스	회장 표한솔(치대 58) 303-6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자치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자치회장	
샌디에고	회장 심상철(공대 81) 858-436-5498 sdunison@gmail.com
자치회장	최홍술(자연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시카고	회장 한일(공대 62) 312-213-8557 eyul1hahn@gmail.com
자치회장	김호범(치대 69) 847-657-8919 hkim@mcogong.com
애틀랜타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8@raethon.com
자치회장	
앨래스카	회장 류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자치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gmail.com
자치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nsong3140@aol.com
자치회장	
워싱턴DC	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12010@gmail.com
자치회장	
워싱턴주	회장 김무용(음대 64) 253-228-4396 czno2@ymail.com
자치회장	
유타	회장 배유현(공대 73) 801-474-1945 you.bae@yahoo.com
자치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 770-449-0000 minparkgh@yahoo.com
자치회장	김정호(공대 74) 770-814-0618 jhkim@nobank.com
플로리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60-4680 hschris@gmail.com
자치회장	
캘리포니아	회장 정신희(자연대 78) 919-928-9686 sinho.jung@duke.edu
자치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019nc.rr.com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리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자치회장	
하들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 66) 913-268-0228 chungm@yaho.com
자치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918-360-9178 wanunadad@gmail.com
휴스턴	회장 이호선(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자치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김홍자(음대 62) 778-355-6659 honjakim@shaw.ca
자치회장	조석기(상대 71) 604-686-4039 서민희(미대 71)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윤희(자연 82) 403-820-8261 delhousied@hotmail.com
자치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강수성(의)·이병준(상)·오민석(법)·이용각

(공)·오종조(지)·이정택(공)·이진규(농)

영예회장: 송승업(문)

제11대 회장: 김은중(상)

자치 회장: 오인환(문)

공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영호(공)

김영부 위원

사무총장: 성무경(상)

총무국장: 박복자(문)

재무국장: 강석현(상)

사업국장: 이종희(문)

선교국장: 이상대(농)

강 사: 김강현(농)·박정원(농)

IT공무위원: 이종도(공대)

기금개발위원: 김영민(공대)

회보 임원

발행인: 김은중(상)

상임고문: 박석현(상)·김건진(문)

편집위원장: 지민우(상)

편집주간: 이기훈

편집위원: 조홍준(의)·박영준(문)·김재영(농)·나철상

(문)·이종도(공)·김지영(시)·김성수(문)

·이연영(문)·김홍현(인문)

논설위원

김일환(지)·김기태(라)·조종준(라)·최홍현(라)·박

성(WA, DC)·육길원(지)·이형광(라)·정홍택(파)·윤상

대(NE)·김창수(NY)·임승준(SF)·정석재(CH)·이석구

(NY)·정요진(LA)

의치위원회

위원장: 서종민(공·PA)

원 원: 한재문(의·IL)·이민영(법·TX)·윤상래(의·

NE)·김지영(사·LA)·선용남(농·NY)

·함은선(문·WA)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은 이기훈 편집주간

snuasaik1@gmail.com

*인쇄: China Times Printing, INC.

445 N. Main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pasc.com

888-833-7400
888-833-7404

facebook.com/jaypasc
twitter.com/jaypasc
youtube.com/user/jaypasc

PASC 무한법을고문그룹

PREPAID ATTORNEY SERVICES CORPORATION

1-800-800-0246 www.pasc800.com

아직도 변호사비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 없이 아임스쿨링 할 수 있습니다.
아임스쿨링은 고문 변호사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한인 변호사의 고문 변호사 제도를
당신의 가정과 사업에 적용하십시오.

PASC

김동산(법대 59) 3435 Wilshire Blvd. Suite 2080 LA. CA 90010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리인 김태정(82년) 대리인 www.duo.co.kr

좋은사람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브라이덜 브랜드 : 규모와 인명,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세태와 더불어 함께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사내에 소용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한국 최정예 : 전국 최정예의 인원을 선발 공무, 2년 6개월이 넘는 최정예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2013년 7차 여행지인 Wondrous Land, Africa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enya & Tanzania Classic Safari Tour

- 7월28일(월)~8월7일(수), 10박11일
- 여행 경비 \$4920 (미국 출발 국제선 항공료 불포함)
- 전일정 딜럭스 호텔, 인사이드 캠프, 식사, 가이드, 차량 포함

Kenya & Tanzania + Post tour Victoria Falls & South Africa

- 7월28일(월)~8월12일(월) 15박16일
- 여행 경비 \$7230 (미국 출발 국제선 항공 불포함)
- 전일정 딜럭스 호텔, 인사이드 캠프, 식사, 가이드, 차량 포함

여러분의 7월은 평균 70 도의 기온으로 1년을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온이며 또한 동물들의 대 이동이 있어 아프리카의 Big 5를 포함, 가장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행중 비행기 이동으로 내륙 저지 지대로 긴 이동 거리는 항공으로 연결, 전 일정 deluxe hotel과 국립 공원내 deluxe lodge에서 숙박합니다. 아프리카 사막의 여행의 매력인 세렝게티의 용과물고로 국립공원과 마사이마리 국립공원 및 마사이족 방문도 경험합니다. 여행자의 안전을 위하여는 한 자택의 도에서부터 자택의 여객기, 현지인 여행, 아프리카의 여객기를 포함합니다.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멋진 여행자들

1월 2007년 지리산, 제주도 여행	2월 2008년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	3월 2009년 태국, 베트남 여행	4월 2010년 리비아, 튀니지 여행	5월 2011년 태국, 인도네시아 여행	6월 2012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행
-------------------------	--------------------------	------------------------	-------------------------	--------------------------	-----------------------------

HANS WORLD TRAVEL
7601 Little River Tr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Tel: 800-363-4267 / 703-455-7177 / 703-458-3110
www.hanstravel.com, Email: hanstravel@earthlink.net
www.flickr.com/photos/hanstravel 여행사진 열람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모금액 256 만 달러 돌파!”

미주재단은 2010년 354,470달러, 2011년 514,189달러, 2012년 1,269,608 달러, 2013년 2월말 현재 425,000달러를 모금해 모금 총액은 2,563,258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기증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재 장학기금(Yongjae Kim Scholarship Fund)**= 의대 66년 졸업 김용재 박사가 올해 1월 50만 달러를 약정하고, 30만 달러를 출연해 ‘김용재 장학기금’을 설정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의대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김용재 동문은 뉴욕에서 저명한 산부인과 개업의였으며, 수년전 은퇴했습니다. 뉴욕 브루크스의 Albert Einstein 의대 교수로 15년간 근무, New York State National Guard 군의관으로 6년간 복직했던 김 동문은 의대 미주 동창회, 미주한인의사회, 기타사회 단체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공로로 김 동문은 모교 의대로부터 ‘장한 의대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안나 장학기금(Anna Lee Scholarship Fund)**= 미 북동부에 거주하는 의대 졸업 의명의 동문이 올해 10만 달러를

약정하고, 2만5천달러를 출연해 ‘이안나 장학기금’을 설정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길러 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모친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정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대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경 회망 장학기금**= 김수호 동문(공대 71)과 부인 박정희 동문(간호대 71)이 10만 달러를 약정, 5만 달러를 출연해 ‘수경 회망 장학기금’을 설정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공대 재료공학부 학생들과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내교수 장학기금**= 김기봉(공대 63) 동문과 신은경(공대 65) 동문 등이 9만 달러를 출연해 ‘내교수 장학기금’을 설정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영어교육과·외국어학과·국사학과·국어·국문학과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서울대학교미주재단 기금현황(10만달러 이상 약정해 설정된 기금(단위 US dollars))

▶**익명의 수의대 동문 수의대 동물병원 및 생명과학동 건축기금** 500,000 출연
▶**김기태 (의대) - 노정옥 장학기금** 500,000 약정, 400,000 출연
▶**김의신(의대) 의대 핵의학과 학술기금** 250,000 출연
▶**박종수(수의대) 수의대 장학기금**

100,000 약정, 75,000 출연
▶**김영석 아세아 연구소 지원기금** 100,000 약정, 50,000 출연
▶**이병준(상대) 법인화 지원기금** 100,000 출연
▶**내교수 장학기금** 90,000 출연
▶**김용재(의대) 의대 장학기금** 500,000 약정, 300,000 출연

▶**익명(의대) 이안나 의대 장학기금** 100,000 약정, 25,000 출연
▶**이홍표(의대) 순환기내과 연구 및 교육기금** 300,000약정, 100,000 출연
▶**익명(의대) 의대 장학기금(생명보험 유증)** 200,000 약정

기금 설정의 기부자

▶**20만 달러 이상**= Qualcomm Incorporated.
▶**10만달러 이상**= Goldman Sachs Heart Image Technology-Alex Goo & Sharon Kim.
▶**1만 달러 이상**= 박홍락 손수웅-에드

워드 강이병희-이준행-홍병자-서울대 남가주 동창회(한종철-김병연)-의대 15회 동기회-강창홍(홍중연구 지원금)-이효배.
▶**1천 달러 이상**= 김은섭-김재진-박기홍-서치원-송순영-송원표-신동국-심진-이경림-이승희-조병진-최은경-최치원-함은-미래재단-의대 24회 동기회-James E. Joseph, Peter & Heide Clark-임현재

-Jimmy Choi-고광선-장국기-이성호-Sharp Tour Corp.-김병연-한종철-성원 P.
▶**1백 달러 이상**= 고광선-박용화-안영학-오경호-이성호-이운선-정인호-차기민-토마스 박-홍선례-메트로 LA 평통-Guy Stevens-Jeanyne Kwack-Yong C. Choi-홍건-Janet R. Griffin.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미국 IRS에 등록된 기관(501-C-3)으로 기부금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및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이만택(의대) 이사장, 김형주(공대 교수)이사, 남익현(경영대 교수)이사, 이석원(사회대 교수)이사, 안지현(인문대 교수)이사, 한종철(치대)이사, 이경림(상대)재무, 김인중(농대)간사, 이원재(상대)간사, 변지훈(사대)예우팀장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뉴욕 본부 1430 Broadway #306 New York, NY 10018 Tel(212)768-9144 Fax 212-768-4494

LA Office 3699 Wilshire Blvd. # 970 LA, CA 90010 Tel(213) 739-0234 Fax 213-380-3024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선대동 산 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F. Tel 02-880-8004 Fax 02-872-4149